

중학생 자녀와 어머니의 생활자원관리에 대한 친환경 지식과 의식 및 태도

임 혜 연, 박 선 희†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주거학과

A Study on Knowledge, Consciousness and Attitude about Middle School Students and Mothers' Environment-Friendly Life Resources Management

Hae-yeon Im, Sun-hee park†

Dept, of Child & Housing Environment, Chonbuk National Univ.

〈Abstract〉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examine how the knowledge, consciousness and attitude affect life resources use of the subjects,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and ultimately,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maximizing the effect of the education consciousness and attitude on environment-friendly life resource management in everyday living.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First, in the aspects of analysis of variance in the general home environment factors of this research, there were some significance according to fathers and mothers' educational level, fathers' job, the type of a house about students and mothers' life resources use.

Second, knowledge about middle school students' life resources use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 But consciousnes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 Knowledge about their mothers' life resources use ha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 but consciousnes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attitude. The results of mothers were similar to those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hers' consciousness and attitud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middle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and attitude.

Key words: Environment-friendly, life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Knowledge, Environment-consciousness, Environment-attitude

† Corresponding author, Tel : 063-270-3837, E-mail : psh3837@chonbuk.ac.kr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무한한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유한성과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자원을 남용하고 훼손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구의 환경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은 1972년 '유엔 인간 환경 회의' 때부터이다. '하나뿐인 지구'라는 구호 아래 역사상 최대 규모로 국가 대표들이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 환경 보전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그 후 20년이 지난 1992년 지구 환경 문제가 시급한 지구의 위기로 다시 크게 부각되면서 '유엔 환경 개발 회의'가 열렸다. 197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프레온 가스와 오존층 파괴, 이상 기후와 지구온난화의 인과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시작으로 인구수의 팽창에 의한 도시화와 그 폐해, 화석 연료로 인한 환경파괴가 진지하게 논의된 회의로서 환경문제가 이미 국가적 차원을 넘어선 범세계적 문제로 나타났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가정 내 일상적 생활 자원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일회용품의 남발, 비환경적 물품의 사용, 재활용품의 활용 미비, 에너지의 낭비 등이 그러한 것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ESSD: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 친화적 접근'이 필요하다(최석진 1995).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생활환경에 가장 기초적 집단으로 자원을 이용하는 가족 및 가족원의 환경 친화적 생활 의식과 행동이 더욱 요구되어지고 있다. 또한, 생활환경의 질 및 생활 자원의 효과적 이용, 관리, 처리 행동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며 지속적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의 환경 교육은 환경에 대한 의식 및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폭넓게 이해시킴으로써 생활 자원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친환경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에서 생활 자원의 이용을 포함한 살림살이를 주로 담당하는 어머니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중학생과 어머니들이 일상생

활에서 사용하는 자원의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및 의식을 조사하고 그러한 태도에 어머니의 의식이나 태도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닌 일상생활 자원의 친환경적 의식이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취시키는 생활환경교육의 기본적 자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중등 가정과 교육에서도 생활 자원 관련 내용을 보다 친환경적 교과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료 제공으로도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생활자원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 정도는 어떠한가 남녀 간의 차이는 있는가?

둘째,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과 의식 및 태도 정도는 어떠한가?

셋째, 일반적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중학생 및 어머니의 생활자원이용의 차이는 있는가?

넷째, 중학생과 어머니 각각의 생활자원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 사이의 관련성 및 중학생과 어머니 사이의 관련성이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환경과 생활 자원

Deacon과 Firebaugh(1983)는 가족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배경으로서의 근접 환경은 친밀하면서도 사적인 접촉 영역으로 다시 물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분류된다. 이것은 주거, 난방시설, 주변의 편의 시설과 같은 공간적 영역의 물리적인 측면과, 가족생활주기, 가족원의 연령, 사회 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등과 같은 인간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다(Deacon, Firebaugh 1983).

가족 및 가족구성원과 가장 친밀한 근접환경은 각 가족의 생활주기, 가족원의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등의 조건에 따라 비교적 쉽게 변화되며 동시에 가족원이 속한 사회의 경제, 기술 등과 같은 광역 환경을 변화시켜 가정의 자원조달과 소비, 재화와 용역의 구매 등과 같은 가정생활의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근접환경과 광역 환경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생활해 나가지만 가족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에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가족이나 개인의 목표 달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Swanson 1981).

이와 같이 가족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가족원의 목표 달성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현대 사회의 환경은 에너지의 낭비 및 쓰레기 문제, 일회용품의 과다사용 등과 같은 생활 자원 이용의 문제점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1인당 0.46kg/일이며, 전체 생활 쓰레기 배출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처리는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여 악취, 침출수 등 문제가 생기며, 발열량이 낮고 수분함량이 높아 소각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되도록 수분의 감량화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비율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환경부 2004).

일반 쓰레기의 배출도 문제점으로 부각된 지 오래이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시행된 것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방법의 하나인 쓰레기 종량제이다. 환경부에서 시행한 '2006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 평가 결과(95-04년)'를 살펴보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 전인 94년에 대비하여 1.33kg/일에서 1.03kg/일로 23%가 감소하였고, 재활용은 175%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러한 종량제 시행 결과 재활용이 증가하고, 소각, 매립 대상 폐기물이 5367만 톤이 감소하여 매립지 침출수 감소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국토 환경의 보전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매립지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이 절감되고, 국토의 이용에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장바구니 가져가기 등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생활 행태가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환경부 2006).

2. 환경 친화적 관리 행동과 교육

환경 친화적 관리 행동은 환경 친화적, 생태 주의적 가치와 같은 개념으로 인간 중심적인 기존의 가치관보다 자연과 환경을 우위에 두는 가치관과 의식을 의미한다(노남숙 1994; 엄하정 1993; 최남숙 1994). 경제학의 시각에서는 환경 문제를 시장 기구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며, 시장 기구를 효과적으로 보완해 준다면 환경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연 자원과 매립 토지도 부족하고 대기 오염도 심각하여 소각하기도 어려워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야 하지만 그리 쉽지가 않다.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이 높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재활용이 별로 높은 경제적 동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활용이 사회에 제공한 기여의 극히 일부만을 대가로 보상받기 때문인데 재활용의 사회에 대한 기여는 자연 자원을 절약하게 하며, 쓰레기 수거, 운반, 매립, 소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게 해 준다. 그리고 쓰레기가 노출되거나 또는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오염을 감소시켜 준다는데 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서의 자원의 재활용은 필수적이며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계의 질서를 소모 및 소비의 체계 방식에서 순환 체계 방식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2) 환경 교육

환경교육은 현대의 산업 사회에서 초등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생존을 위한 교육', '삶의 질을 유지하는 교육'이며 현재의 환경 문제와 미래에 도래할 환경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미래 지향적, 목표 지향적, 가치 지향적, 행동 지향적인 전인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소기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신세욱 1996).

무엇보다 환경 교육은 인간의 삶과 생활환경과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어 주기 때문에 환경 보존에 관련된 생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의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청소년 시기에 생활 자원의 이용에 대하여 환경 보전적 가치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환경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3. 선행 연구 고찰

선행연구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한 청소년에 대한 친환경적 생활 자원 관리에 대한 지식과 의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들이 소비자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적 차원에서의 지식과 의식 및 태도에 대하여 수행한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환경 지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로서 백경미(1987)는 에너지 절약행동의 요인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지식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 절약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에너지 절약태도 및 지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 이승신, 이혜임과 류미현(1993)은 소비자의 환경 보존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환경을 의식하는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무영과 이정우(1995)는 환경지식이 자원 절약 행동 또는 환경 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쳐 환경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환경 친화적 소비자 행동이나 자원 절약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이상협(2003)은 대체적으로 주부들의 환경 지식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일수록 환경지식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지식에 관한 수준은 재활용행동과 분리배출행동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홍성희, 이경희와 곽인숙(2004)은 도시 주부의 환경 지식과 자원 절약 태도가 자원 절약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에서 환경 지식은 자원 절약 태도의 형성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환경 지식의 많음이 자원절약태도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동기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환경 의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최남숙(1994)은 환경 의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환경 보존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 의식의 수준이 높았다. 곽인숙과 송요숙, 김태련과 김경애(1998)는 환경 의식이 높은 집단이 재활용률이 높게 나타나 재활용 처분 행동의 중요 동기요소가 환경의식이라고 하였다. 이상협(2003)은 주부들의 환경 의식 점수가 환경 교육과 환경 지식보다 높았으며 환경 의식이 자원의 구매, 사용, 재활용과 분리배출 행동과 관련한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해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환경 의식의 고취를 위해 물적 자원의 절약과 경제적 성과를 중요시하는 교육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환경 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서 유두련과 심미영(1998)은 자원 절약적 소비자 태도와 행동에는 환경 교육 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민현선과 이기춘(1999)은 환경 친화적 소비 태도가 개인보다 사회에 우선한 개념이어서 더 소극적이라고 하였으며 개인보다 사회에 이익이 더 귀속되므로 자발적 실천 태도를 보이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 친화적 소비 태도와 소비

행동 간의 불일치는 환경문제 심각성의 인식 부족과 환경 친화적 태도의 실천에 있어서의 불편함, 경제적 비용, 정보 부족 등을 원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정우(2000)는 어머니의 환경 보존 행동 중 분리행동, 재활용행동, 구매행동이 아동기 자녀의 환경 보존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환경 보존 행동이 높으며 잘 실천하는 태도에서 자녀의 환경 보존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홍성희, 이경희와 곽인숙(2004)은 도시 주부의 자원 절약 태도에 환경 관련기사 관심 유무, 시간의 제약 지각, 주택 소유형태 및 환경 지식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자원 절약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자원 절약 태도가 자원 절약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선행요인이라고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시에 소재한 S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과 그들의 어머니 3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남학생 147명, 여학생 126명의 중학생 자료 총 27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어머니의 응답 자료는 26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환경 용어 사전과 환경과 자원에 대한 관련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후 전공 분야 전문가 2인의 의견을 들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크게 7영역으로 어머니와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 9문항,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의 지식 10문항, 의식 10문항, 태도 1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의 지식 10문항과 의식 15문항, 태도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정도를 묻는 문항은 4지 선다형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정답은 1점으로 총 10점을 만점으로 하였다.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과 태도를 묻는 설문지는 '매우 그렇다'에서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조사 도구의 신뢰도는 의식, 태도의 영역에서 파악한 결과,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는 각각 Cronbach's $\alpha = .77, .72$ 였고, 어머니의 의식과 태도는 Cronbach's $\alpha = .92, .87$ 로 검증되었다(표 1).

〈표 1〉 영역별 설문지 구성 내용 및 신뢰도

구분	중학생용 설문지			어머니용 설문지		
	관련영역	문항수	신뢰도	관련영역	문항수	신뢰도
지식	생활자원, 에너지절약, 재활용, 환경상품, 소비생활, 포장	10		생활자원, 에너지절약, 재활용, 환경상품, 소비생활, 포장	10	
의식	에너지절약, 물자절약, 재활용, 환경상품, 포장	10	.77	에너지절약, 물자절약, 재활용, 환경상품, 소비생활, 환경보호	15	.92
태도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자절약, 재활용, 환경상품, 소비생활, 포장	15	.72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자절약, 재활용, 환경상품, 소비생활	15	.87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Window용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분산분석, 상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Ⅳ. 결과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설문에 응답한 273명의 중학교 1학년 학생 분포를 보면,

남학생이 147명(53.8%), 여학생이 126명(46.2%)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다소 많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40세~49세가 69.5%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28.3%, 30세 미만과 50세 이상이 각각 1.1%를 차지하였다. 현재 거주 가족원의 수는 4명이 60.4%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 34.1%, 2~3명이 5.5%였으며, 거주 기간은 6~9년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3년 미만 28.2%, 10년 이상 22.3%, 3~5년 18.7% 순이었다.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가 83.4%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이 13.3%, 기타 3.3% 순이었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400만원

〈표 2〉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f	%	변인	구분	f	%
성별	남	147	53.8	가족원수	2-3명	15	5.5
	여	126	46.2		4명	164	60.4
어머니 연령	30세미만	3	1.1	5명 이상	93	34.1	
	30-39세	77	28.3	3년미만	77	28.2	
	40-49세	189	69.5	3-5년	51	18.7	
	50세이상	3	1.1	6-9년	84	30.8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31	11.4	10년이상	61	22.3	
	200-300만원미만	71	26.0	아파트	226	83.4	
	300-400만원미만	85	31.3	단독주택	36	13.3	
아버지 교육수준	400만원이상	85	31.3	기타	9	3.3	
	고졸이하	85	31.1	어머니 교육수준	고졸이하	30.6	52.4
	대졸	147	53.8	대졸	54.2	39.4	
아버지 직업	대학원이상	41	15.1	대학원이상	15.1	8.2	
	경영관리직	11	4.0	경영관리직	3	1.0	
	전문직	43	15.8	전문직	18	6.6	
	사무직	124	45.6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	121	44.5
	서비스직	60	22.1	사무직	38	14.0	
농업관련직	농업관련직	4	1.5	서비스직	66	24.3	
	기타	30	11.0	농업관련직	9	3.3	
				기타	17	6.3	

이상이 각각 31.3%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 이 26.1%, 200만원 미만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 중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3.8%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1.1%, 대학원 졸업 이상이 15.1%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2.4%, 대학교 졸업이 39.4%, 대학원 졸업 이상이 8.2%로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아버지보다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이 45.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 22.1%, 전문직 15.8%, 기타 11.0%, 경영관리직 4.0%, 농업관련직 1.5% 순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44.5%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직 24.3%, 사무직 14.0%, 전문직 6.6%, 농업관련직 3.3%, 경영관리직 1.1%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

1)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친환경 지식 정도는 남녀학생 각각 평균 6.9점과 7.14점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정도는 <표 3>과 같다. 조사 대상 전체 중학생들의 생활 자원 이용의 지식은 100점 환산점으로 볼 때 70.1점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전체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문항은 녹색상품(97.8%), 리필(86.4%), 아나바다운동(85.0%) 순이었으며 지식 정도가 낮은 문항은 환경 상품(61.9%), 쓰레기 처리(50.9%)로 이들 항목에 대한 정답률은 평균 점수 이하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녹색상품'과 '리필', '에너지'의 문항에서 높은 지식 정도를 보였으며 '과대포장과 포장비용'과 '쓰레기종량제', '환경상품'의 문항에서는 낮은 정도를 나타냈다. 여학생들의 지식 정도가 높은 문항은 '아나바다 운동'과 '녹색상품', '리필' 문항이었으며 지식 정도가 낮은 문항은 남학생들과 거의 비슷하게 '과대포장과 포장비용'과 '쓰레기종량제', '환경상품'의 문항이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비교를 해보면 '아나바다운동',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 항목에 대하여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지식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위하였다.

<표 3>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문항	남(평균)	여(평균)	정답률*
1. 생활자원이 아닌 것은?	7.35	7.54	74.4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는?	8.16	7.94	80.6
3. 소비 생활 중 절약을 의미하는 용어는?	7.89	9.21	85.0
4. 과대포장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상품은?	4.01	4.05	40.3
5.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7.96	8.49	82.1
6. 녹색상품이란 무엇인가?	9.66	9.92	97.8
7. 과도한 포장비용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현상은 무엇인가?	4.01	4.37	41.8
8. 내용물을 원래의 용기에 다시 채워 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8.64	8.65	86.4
9. 같은 종류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이 덜한 제품을 무엇이라 하는가?	6.12	6.27	61.9
10.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배출하는 제도는?	5.17	5.00	50.9
계	6.90	7.14	70.1

* 정답률 : 정답자/전체인원×100 (%)

〈표 4〉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

문항	남 평균(SD)	여 평균(SD)	전체 평균(SD)	t값
1.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끄는 편이 좋다.	4.57(0.67)	4.69(0.53)	4.63(0.61)	-1.61
2.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 두어야 한다.	4.03(1.09)	4.10(0.92)	4.06(1.01)	-0.55
3. 선물포장은 간단하게 한다.	3.92(0.99)	3.73(0.90)	3.83(0.96)	1.58
4. 사용한 복사지는 이면지로 활용해야 한다.	3.89(1.13)	4.08(0.96)	3.98(1.06)	-1.47
5. 자습서는 물려받거나 물려주어야 한다.	3.42(1.19)	3.77(1.07)	3.58(1.15)	-2.54*
6.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쓰는 것이 좋다.	3.62(1.02)	3.62(0.90)	3.62(0.97)	-0.01
7. 물건을 살 때 환경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3.65(1.12)	3.40(1.04)	3.54(1.09)	1.87
8. 일회용품은 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01(1.05)	4.14(1.03)	4.07(1.04)	-1.07
9.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4.47(0.83)	4.65(0.58)	4.55(0.73)	-2.06*
10. 현재 쓰지 않는 물건은 남에게 주어 재사용하게 하는 것이 좋다.	3.71(1.13)	3.90(1.03)	3.80(1.09)	-1.38

* p < .05

2)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

중학생들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의식은 남학생이 3.97(1.19), 여학생이 3.99(1.09)로 나타났으며, 남녀학생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들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은 〈표 4〉와 같다. 남녀학생 모두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과 분리수거’에서는 높은 의식정도를 나타냈으며 ‘선물포장’과 ‘물자의 재활용’, ‘환경마크 확인하기’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 및 분리수거’의 문항에서 높았으며 ‘물자의 재활용’과 ‘환경마크 확인하기’의 문항에서는 낮은 정도를 나타냈다. 여학생들도 남학생들과 비슷하게 ‘에너지 절약’과 ‘일회용품과 분리수거’의 문항에서 높았으며 ‘이면지의 재활용’에서도 약간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선물포장’과 ‘환경마크확인하기’의 문항에서는 낮은 의식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여학생들은 이 문항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들보다 상위하였으며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의 ‘자습서 물려받고 물려주기’ 5번 문항과 ‘분리수거’의 9번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위하였으며 남녀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의 의식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다.

3)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

중학생들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태도는 남학생이 3.37(1.13), 여학생이 3.36(1.07)으로 나타났으며, 남녀학생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중학생들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는 〈표 5〉와 같다. 남녀학생 모두 ‘전등 에너지 절약’과 ‘분리수거’ 및 ‘선물포장’, ‘물건 구매와 사용’에서는 전체 평균보다 높은 태도를 보였으며 ‘전열 에너지 절약’과 ‘환경마크 확인하기’, ‘물자의 재활용’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남학생들은 ‘전등 에너지 절약’과 ‘선물포장’, ‘분리수거’에서 높은 태도를 보였으며, ‘수자원 절약 및 전열 에너지 절약’과 ‘환경마크 확인하기’와 ‘물건 구매와 재활용’의 문항에서 낮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여학생들은 ‘전등 에너지 절약’과 ‘분리수거’, ‘물자의 재활용’에서 높은 태도를 보였으며, ‘수자원 절약 및 전열 에너지 절약’과 ‘환경마크 확인하기’, ‘물자 절약’과 ‘물건 구매’의 문항에서 낮은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비교를 해보면 남학생들은 ‘전열 에너지 절약’과 ‘선물포장’, ‘물건 구매’와 ‘환경마크 확인하기’, ‘일회용품’의 문항에서 여학생들보다 상위하였으며 여학생들은 ‘물자의 재활용’과 ‘물건 구매 및 절약’의 문항에서 남학생들보다 상위하였다. 〈표 5〉의 7번 문항인 ‘자습서 물려주

〈표 5〉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

문항	남 평균(SD)	여 평균(SD)	전체 평균(SD)	t값
1.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끈다.	4.24(0.94)	4.33(0.83)	4.28(0.89)	-0.81
2. 세수나 양치질 시 물은 받아서 쓴다.	3.25(1.36)	3.29(1.23)	3.27(1.30)	-0.22
3.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의 플러그는 뽑아둔다.	3.22(1.41)	3.00(1.33)	3.12(1.38)	1.34
4. 선물포장은 간단하게 하려고 한다.	3.82(1.02)	3.60(1.06)	3.72(1.04)	1.68
5. 학용품은 끝까지 쓰려고 하는 편이다.	3.62(1.09)	3.43(1.08)	3.53(1.09)	1.44
6. 사용한 복사지는 이면지로 활용한다.	3.60(1.27)	3.69(1.18)	3.64(1.23)	-0.61
7. 자습서는 물려받거나 물려주는 편이다.	3.33(1.27)	3.72(1.32)	3.51(1.31)	-2.46*
8. 비누나 샴푸를 아껴 쓰는 편이다.	3.30(1.09)	3.24(1.00)	3.27(1.04)	0.47
9. 물건은 필요한 만큼만 산다.	3.67(1.06)	3.52(0.99)	3.60(1.03)	1.20
10. 물건을 살 때 환경마크를 확인하는 편이다.	2.64(1.26)	2.14(1.04)	2.41(1.19)	3.51**
11. 새로운 학용품이 나오면 잘 사는 편이다.	2.20(1.07)	2.53(1.08)	2.35(1.08)	-2.55*
12. 물건을 사기 전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편이다.	3.36(1.25)	3.18(1.11)	3.27(1.19)	1.24
13. 일회용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3.39(1.06)	3.34(1.05)	3.37(1.05)	0.32
14.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버리는 편이다.	3.90(1.18)	3.92(1.02)	3.91(1.11)	-0.17
15. 현재 쓰지 않는 물건은 남에게 주어 재사용하게 하는 편이다.	3.24(1.19)	3.40(1.22)	3.32(1.21)	-1.06

*p<.05 **p<.01

고 물려받기, ‘환경마크 확인하기’의 10번 문항, 그리고 11번 ‘새 학용품 구매’의 문항에서는 남녀학생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항목은 여학생이 ‘자습서의 재활용’에서는 남학생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새학용품 구매’는 남학생보다 더 선호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환경마크 확인태도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

1)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은 〈표 6〉과 같다.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높은 문항은 녹색

상품(92.3%), 리필(90.8%), 아나바다 운동(86.4%), 에너지(80.6%) 순으로 높았으며 〈표 3〉의 중학생의 지식 정도가 높은 문항과 비교적 일치하였다. 지식 정도가 낮은 문항은 과대 포장 상품(27.1%), 과다 포장 비용(49.1%)으로 이들 항목에 대한 정답률은 거의 50%이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와 비슷하게 낮은 지식 정도를 보였으나 ‘환경마크’, ‘쓰레기 처리’의 중학생의 지식 정도가 낮은 문항과 비교할 때 중학생 자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점수는 100점 환산 점수로 볼 때 70.8점으로 중학생 자녀와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었으나 〈표 6〉의 1번, 4번, 5번, 6번의 ‘생활자원’, ‘과대포장’,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 ‘녹색상품’의 항목에서는 중학생의 지식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어머니의 지식 점수는 70.8로 중학생들의 70.1점보다 조금 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문항	정답률 *
1. 생활자원이 아닌 것은?	59.7
2.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는?	80.6
3. 소비 생활 중 절약을 의미하는 용어는?	86.4
4. 과대포장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상품은?	27.1
5. 가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70.3
6. 녹색상품이란 무엇인가?	92.3
7. 과도한 포장비용으로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49.1
8. 내용물을 원래의 용기에 다시 채워 쓰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90.8
9. 같은 종류의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이 덜한 제품을 무엇이라 하는가?	61.5
10.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배출하는 제도는?	68.9
계	70.8

* 정답률 : 정답자/전체인원×100 (%)

<표 7>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

문항	평균(SD)
1.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끄는 편이 좋다.	4.71(0.50)
2. 냉장고는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좋다	4.29(0.73)
3.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두어야 한다.	4.46(0.71)
4. 합성세제는 설명서에 표기된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4.38(0.64)
5. 비누나 치약 등은 끝까지 사용해야 한다.	4.57(0.58)
6. 신문, 광고지, 폐지 등을 복사지로 바꾸어 써야 한다.	3.87(1.01)
7. 작아서 못 입는 옷은 물려주고 물려받아야 한다.	4.28(0.80)
8. 고장난 물건은 새로 사는 것보다 고쳐서 사용해야 한다.	4.25(0.76)
9. 물건은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것이 좋다.	4.52(0.62)
10. 물건을 살 때 환경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4.06(0.89)
11. 물건 구매 시 알뜰 장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4.10(0.77)
12. 물건을 사기 전 필요인지 생각해야 한다.	4.55(0.53)
13. 일회용품은 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33(0.76)
14.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4.67(0.62)
15.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줄여서 버려야 한다.	4.50(0.66)
계	4.35(1.32)

2)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인식

중학생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인식의 평균은 4.35(1.32)로 비교적 높은 인식 정도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과 ‘분리수거’, ‘물건 구매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인식은 평균보다 상위하였다. 이는 생활 속에서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과 절약 인식을 지닌 것으로 판단되며 바람직한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의 정착화, 일회용품 사용하지 등의 법적 강화*로 인하여 가정 경영에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동기 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기에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된다. ‘폐지 및 물자의 재활용’은 평균보다 낮았는데 이는 풍부한 물자의 공급으로 인하여 재사용이나 재활용보다 새로 구입하려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환경마크 확인하기’도 평균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태도는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6으로 비교적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에서 높은 정도를 나타냈고 ‘생필품 끝까지 사용’과 ‘합성세제의 적정량 사용’의 물자 사용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분리수거’의 태도도 평균보다 상위하였는데 이는 공공기관과 국가적 차원에서 쓰레기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어 가정생활을 관리하는 어머니에게 작용한 것이라 생각되며 홍성희 등(2004)의 자원 절약 태도가 자원 절약 행동을 이끌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와 일치한다. ‘작아진 옷 물려입고 물려받기’ ‘고장난 제품의 수리 사용’의 물자의 재활용에서도 평균 정도의 양호한 태도를 나타내었지만 ‘폐지의 복사지로 교환하여 사용’ 문항에서는 3.25(1.24)로 평균보다 낮아 이면지의 사용이나 재활용품의 적극적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환경마크 확인하기’와 ‘알뜰장터 이용’에서도 3.48(0.99), 3.58(1.04)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표 8>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

문항	평균(SD)
1.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끈다.	4.50(0.65)
2. 냉장고는 가득 채우지 않는 편이다.	4.05(0.80)
3.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는 뽑아둔다.	3.91(0.99)
4. 합성세제는 필요량만 사용하는 편이다.	4.16(0.78)
5. 비누나 치약 등은 끝까지 사용하는 편이다.	4.39(0.71)
6. 신문, 광고지, 폐지 등을 복사지로 바꾸어 사용한다.	3.25(1.24)
7. 작아서 못 입는 옷은 물려주고 물려받는 편이다.	3.96(0.98)
8. 고장난 물건은 고쳐서 사용하는 편이다.	3.93(0.89)
9. 물건은 필요한 만큼만 사는 편이다.	4.19(0.75)
10. 물건을 살 때 환경마크를 확인하는 편이다.	3.48(0.99)
11. 물건 구매 시 알뜰 장터를 이용하는 편이다.	3.58(1.04)
12. 물건을 사기 전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편이다.	4.21(0.82)
13. 일회용품은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4.00(0.89)
14. 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분리해서 버리는 편이다.	4.50(0.67)
15.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여 줄여서 버리는 편이다.	4.21(0.78)
계	3.96(1.23)

*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 결과(’95~’04년)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시행 전(’94) 대비 23% 감소, 재활용 175% 증가,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재활용품 가치 증가로 10년간 약 8조 4백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

4.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관련성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 및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 및 어머니의 직업, 현 거주 가족원의 수, 현 거주지의 거주 기간, 주택의 형태, 가계의 월평균 소득을 변인으로 하여 생활 자원 이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9>와 같이 아버지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 주택의 형태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1)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관련성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중학생 및 어머니의 지식, 의식, 태도의 분산분석 결과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과 대학원졸업이상의 응답자들에게 높게 나타났으며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F=6.30**, p<.01)를 나타냈다. 즉, 남편의 학력은 어머니 본인의 지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상협(2003)의 '환경 친화적 가정 자원 관리 행동과 환경의식, 환경교육의 연구에서 남편의 교육수준의 정도가 아내의 환경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와 비슷하다.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역시 어머니 본인의 생활 자원 이용에 관한 지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F=4.31**, p<.01),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어머니 본인에게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

2) 부모의 직업에 따른 관련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변인으로 중학생 및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 9>에 따라 아버지의 직업은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관한 지식에만 유의한 차이(3.35**, p<.01)를 보였으며, 어머니의 의식과 태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중학생 및 어머니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른 관련성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는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과 의식, 태도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은 주택의 형태와 유의한 차이(F=3.46*, p<.05)를 나타냈으며<표 9>,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특히, 아파트 거주 중학생의 지식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친환경 관리의식 및 실천의 영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9>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분산분석

	변인		평균	표준편차	F값
어머니 지식	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6.63	1.54	6.30**
		대졸	7.12	1.58	
		대학원졸이상	7.68	1.61	
어머니 지식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이하	6.82	1.66	4.31**
		대졸	7.42	1.45	
		대학원졸이상	6.86	1.69	
어머니 지식	아버지의 직업	경영관리직	7.90	1.13	3.35**
		전문직	6.76	1.97	
		사무직	7.40	1.37	
		서비스직	6.69	1.73	
		농업관련직	7.50	1.00	
		기타	6.55	1.54	
중학생 지식	주택의 형태	아파트	7.09	1.42	3.46*
		단독주택	6.80	1.61	
		기타	5.88	1.26	

*p<.05 ** p<.01

5.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및 태도의 관련성

중학생들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은 의식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중학생의 지식은 태도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냈는데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생의 지식이 높을수록 태도는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천하는 태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예측할 수 있겠다.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은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이 높으면 태도도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0>의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과 의식, 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은 의식과 태도와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의식과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것은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이 의식과 태도와는 관련성이 적지만 의식이 높으면 태도가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이 높을수록 태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생활 자원의 이용에 대한 지식과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와의 관련성, 어머니의 의식과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와의 관련성, 어머니의 태도와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와의 관련성의 결과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중학생 자녀의 의식과 태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즉,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의식이 중학생 자녀의 의식에 정적 상관관계

($r=0.21$)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는 중학생의 의식에 정적 상관관계($r=0.14$)를 나타냈고,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태도 역시 중학생의 태도에도($r=0.27$)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친환경적 의식 및 태도가 중학생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그만큼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태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중학생의 친환경 지식은 70.1점(100점 환산)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남녀학생 집단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중학생의 의식은 3.94(1.15)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나 남녀학생 집단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 중학생의 태도는 3.35(1.11)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상위하였지만 남녀학생 집단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중학생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지식은 70.8점(100점 환산)으로, 의식은 4.35(1.32)로 나타났으며, 태도는 3.96(1.23)로 나타났다. 지식은 중학생과 비슷한 정도였으나 의식과 태도는 중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가정환경을 변인으로 분산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아버지의 직업은 어머니의 지식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주택의 형태는 중학생의 지식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표 10> 중학생과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지식, 의식, 태도의 상관관계

		중학생			어머니		
		지식	의식	태도	지식	의식	태도
중학생	지식						
	의식	0.05					
	태도	-0.14*	0.39**				
어머니	지식		0.07	0.05			
	의식		0.21**	0.16	0.04		
	태도		0.14*	0.27**	-0.02	0.44**	

* $p < .05$ ** $p < .01$

넷째, 중학생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과 의식이 생활 자원 이용의 의식과 태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지식은 의식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의식은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과 의식이 어머니 본인의 생활 자원 이용의 친환경 의식과 태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중학생과 비슷하게 지식은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의식은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어머니의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친환경 지식, 의식, 태도가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어머니의 의식과 중학생의 의식은 정적 상관관계를, 어머니의 태도가 중학생의 의식과 태도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 성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생활의 친환경 지식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생활 자원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및 환경교육이 다방면에서 실시될 수 있는 경험이 장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청소년에게 영향을 크게 부여할 수 있는 부모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네 번째 결과를 참조하면 지식은 태도에 부적 상관, 의식은 태도에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지식과 의식, 태도가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교육과 일선 매스컴의 홍보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머니의 가정 자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아직 많이 작용하는 현실에서 어머니의 친환경적 의식과 태도가 자녀의 자원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생활 자원 이용에 대한 어머니와 자녀의 일관된 교육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 보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나아가 생활에서의 환경 친화적 행동이 우선적이 되어야 함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I. 참고 문헌

- 강희선(1993). 청소년소비자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인숙, 송요숙, 김태련, 김경애(1998). 환경의식과 가정 쓰레기의 처리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2): 1-18
- 김시월, 이명숙, 이혜임, 권오정, 이진영(1998). 소비생활과 재활용. **대한가정학회지** 36(9): 107-125
- 노남숙(1994). 환경관리지식 인지도와 환경관리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래, 김시월(2002). 소비자의 환경의식·재활용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163-178
- 민현선, 이기춘(1999). 환경 친화적 소비태도와 소비행동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7(1): 29-44
- 박운아,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1): 199-212
- 백경미(1987).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세욱(1996). **한국의 환경교육**, pp. 219-229, 교육과학사, 서울
- 엄하정(1993). 환경오염 감소와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두련, 심미영, 정정옥(1996). 환경교육이 환경 의식적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97-210
- 유두련, 심미영(1998).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 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23-140
- 이무영, 이정우(1995).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3(4): 11-23
- 이상협(2003). 환경 친화적 가정자원관리행동과 환경의식, 환경지식, 환경교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91-102
- 이승신, 이혜임, 류미현(1993). 환경보존을 위한 소비자능력. **한국소비자학회** 4(2): 73-96
- 이운옥(2003). 영상매체를 이용한 환경 교육이 환경의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한경혜(2000). 어머니의 환경보전행동이 아동기 자녀의 환경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109-122
- 임정빈, 지영숙, 문숙재, 이기영, 이연숙(1994). **가정관리학**, pp. 331-357, 학지사, 서울

19. 천행선(2004). 문제해결학습을 통한 환경 교육이 자원절약생활화에 미치는 효과. **부산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최남숙(1994). 서울시 주부들의 환경교육과 환경보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최남숙(1994). 환경 교육과 환경 의식이 환경 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5): 29-44
21. 최남숙(2001).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자원재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7): 59-70
22. 최석진(199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의식과 환경 교육. pp. 253-273, 박영사. 서울
23. 홍성희, 이정희, 광인숙(2004). 도시주부의 환경지식과 자원절약태도가 자원절약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9): 67-83
24. 홍은표(1992). **현대소비자론**. pp.189-204, 석정. 서울
25. 환경부(2004).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http://me.go.kr>
26. 환경부(2006).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성과평가결과. <http://me.go.kr>
27. Deacon, R.E. & Firebaugh, F.M.(1980).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Allyn and Bacon Inc.
28.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J.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29. Swanson, B.B.(1981). *Introduction to Home Manage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30. Tucker, S.M. & Rice A.S.(1986). *Family Life Manage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